킹제임스 성경학교

성경강해 SR#1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17 강의 : "물(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들)"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기도 ◀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한 권의 거룩한 책, Holy Bible 을 다 읽고 먹어 우리의 속에 인간의 생각은 다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와 소개 ◀

오늘은 시편 18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8 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은 다음에 기록한 다윗의 시인데,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여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한 시편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예언한 시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부음 받았고, 다윗에게 그 세가지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많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스패닉 예배 때 증거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17: 시편 18 편

A▶: 1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2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3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4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5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6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과 지옥의 슬픔, 경건치 못한 자들의 홍수"가 우리를 에워쌀 때 주님은 일어서실 것이다 ◀

→ 사울이 다윗을 따라 다녔을 때 정말 "죽음의 슬픔"과 "지옥의 슬픔"이 에워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울처럼 못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우리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하는 기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때" 고난 속에 핍박을 받던 우리는 열린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

B▶: 7 그 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땅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때 난리가 날 겁니다. 지상재림 땐 더하지요. 그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야 알지요. **"그 때"** 그러지 말고 → **"지금"** 믿어야 합니다. '엘에이 빅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요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진에 뭘 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몇 끼나 먹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 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살게 하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거기서 일어나시면 →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 장에 주님이 오실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이 **"목이 곧고 악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하자,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54 그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더라 그러나 55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 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왜 주님이 일어나 섰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으니까 → 일어서신 것입니다. 성도와 주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이 일어서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고, 그 때 책망하는 모세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다가 죽였습니다. 스데반과 모세와 주님을 치고 죽인 것은 →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화가 벌컥 날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고 했지요. 그 생각은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내려오시는 그 때, 우리가 올라갈 하늘의 문은 열리고 땅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물(세상)에서 건져내심 ① — 거듭나서 소처럼 말씀을 먹을 때 땅에서 하늘로 건져냄을 받는다 ◀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은 → 아무리 말을 해도 안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야 세상을 보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 이런 게 있다, 저기 저런 게 있다" 해도, 아이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말 안 해줘도 "눈을 뜨면 →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 눈을 뜨는 것같이 거듭나서 새롭게 보는 것"이 없으면 →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왜 "경"이라고 했을까요? "경"이 뭐지요? "공자왈 맹자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에 "성경"도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소 귀에 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위가 한 개인가, 네 개인가? ◀

아까 히스패닉 예배 때, "여러분은 위장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밥통이 하나 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렇게 물으니 묻는 저를 눈을 다 똥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라고 하지요. 저는 "네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는 위장이 네 개가 있어서 짚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통해 완전히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소화 흡수율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짚만 먹는 소가 온갖 것을 먹는 사람보다 힘이 데 셉니다. 우리도 지프라기를 먹으면 힘이 세질까요? 우리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게 영적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적인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째 위"로 가서 →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저 말씀 한 번 듣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 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는 다 주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주고 갑니다. 살아서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간, 혀, 꼬리, 발 … 그 어느 하나 안 주는 거 없이 다 주고 가지요. 심지어 곱창 전골까지 해 먹습니다. 옛날 남대문 시장에 가면 '수그레'를 팔았습니다. 소의 거죽 쪽 살입니다. 그걸 '수그레'라고 합니다. 온갖 독성이 있는 그걸 사람들이 술안주로 먹었지요. 그것만인가요, 가죽을 갈아서 아교풀로 만들어 씁니다. 제가 고려피혁을 인수했을 때, 그 과정을 2 달을 지켜보면서 '소는 정말 우리에게 다 주고 가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소는 그런데, 사람은 다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잘못 산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가족들의 속을 썩입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그 비용이 돈 만 불은 깨지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지요. 사람이 개나 소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됩니다. 성경에 주님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네 가지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그렇게 소처럼 열심히『① **일만하신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②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③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④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나와있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모습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유일한 길 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소처럼 다 먹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상)에서 건져내심 ② — 건져내러 오실 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C▶: 8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 숯이 피웠다는 게 뭡니까? 숯이 구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숯은 나무로 만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나무들이 다 숯이 될지도 모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타버려 나무가 숯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심판주"**를 예언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마귀도 흉내를 냅니다. 욥기 49 편에 **"붉은 용, 마귀가 코에서 연기를 내 뿜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모습인데, 사람도 그걸 흉내냅니다. 입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코로 나오는 것은 영락 없는 담배 피는 모습입니다. 담배 피우는 게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담뱃불 빛은 밤에 전투기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야간전투에서 담뱃불 하나로 부대가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나가면 절대로 못 피게 하지요. 심판의 불과 연기를 담뱃불과 연기로 따라가면 안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담배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언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쏜다고 했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합니다.

D▶: 9 그가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움이 있었도다 10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 땅이 불에 타고 하늘이 기울어지는 엄청난 천지의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이 그룹을 타고 날라 다니며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사면에 "그룹"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 장이 "그룹"을 설명합니다.

4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5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6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7 그들의 발은 곧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 나는 놋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8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9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10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11 그들의 얼굴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12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13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14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남 같더라

→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일어나지요. 같이 오는 네 생물인 "그룹"은 좌우에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은 좌우에 세 개씩 여섯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천사와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800 개중 초림에 관한 300 개는 이루어졌고, 이처럼 재림에 관한 500 가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지요. 주님이 오실 때 네 생물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 광경은 정말 엄청나지요. 번개, 우뢰, 불, 연기, 회오리 바람, 우박, 숯불 ....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E▶: 11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12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13 주께서 또한 하늘들의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14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도다 15 그 때에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 땅 위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들의 통로들 위에, 물 위에 세상의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런 일, 불과 구름과 연기와 섬광이 보는 이들을 두렵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한 말이 출애굽기 20 장에 있습니다.

18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19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하니 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21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돌로 치려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인간에겐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꼬꾸라지는 겁니다. 국물이 없습니다. 미국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경찰이 딱지 떼려하니까 "한 번만 봐주라 One time see me." 하니까 경찰이 "국물도 없다! No soup!" 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뇌물로 해보려 하니까, 큰 도시에 있는 경찰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치사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치사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떠는 일 없이 미리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 있기 바랍니다. 미리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상)에서 건져내심 ③ —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물"은 무엇인가? ◀

F▶: 16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취하시고』『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불바다가 되니까 그 속에서 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물에서 건져냅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뜻할 때가 많으나 요한계시록 17 장은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15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 **『백성들과 무리들과 무리들과 언어들』**이라

→ 창녀는 바티칸이지요. 물,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뽑아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휴거지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 받는 사람과 환란 중에 휴거 되는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물(세상)에서 건져내심 ④ — "물"에서 건져내어 들어올리시는 곳은 "넓은 곳"이다 ◀

G▶: 17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18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니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음이라

→ 이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뽑아 건져내어 번쩍 들어올리면 하늘인데,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넓은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당부와 권면 ◀

1 건져냄을 받기 위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H▶: 20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우리의 의로 받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갚으신다고 하셨으므로, 내 손이, 내 손이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갚으십니까? 주의 길을 떠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주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2 정직하게 행함으로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어 건져냄을 받으라

I▶: 22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 버리지 않았음이라 23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 시편 37 편에 "정직한 날들을 주께서 아시나니" 하셨고, 그렇게 정직한 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의로운 자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불경기에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됩니다. 제가 구원 받고 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김권사님 아들은 거듭난 사람인데,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맨날 비자금이나 만들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돈도 많이 받고 인정 받은 사람인데, "어머니 제가 이 직장을 더 이상 못다니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권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래, 관둬라!" 했다지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부산에 어느 좋은 교회에 가서 말씀만 듣는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올 수 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만 들으니 너무 좋다는 거지요. 그냥 먹고 입을 수만 있어도 해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자'이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경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도 정직한 자에게 이익을 더 줍니다.

3 자기 안의 여리고 성, 그 벽을 뛰어넘어 교만한 자신의 눈 높이를 낮추라

J▶: 25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26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27 **이는 주께서 고난 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28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29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30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 정직하게 하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자에게는 → 하나님이 정직하심과 순결하심을 보이시며, 그렇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한 자에게는 → 하나님이 완고하심과 진노하심을 보이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고 "눈이 높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할 때 그 교만한 눈은 낮추어지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교만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촛불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가 되어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달려야 하고 여리고 같은 성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성벽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의 벽, 순결하지 못한 마음의 벽, 완고한 마음의 벽, 교만한 마음의 벽입니다.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군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 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그렇지 못한 세상 군사들이 섞여있는 고난의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려갈 길을 다 가기 바랍니다. 세상 군사들은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뛰어넘어 승리하고, 그 날에 건져내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 건져내어 들어올림을 막아버리는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생각 해보라

이 전쟁과 관련해, 아까 히스패닉 예배 때 고린도후서 10 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5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틀리면 → 내 생각을 다 버리고 →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은 뛰어넘어야 할 성벽이고 요새이고 그건 고집입니다. 아집이지요. 고집이 센 사람이 많습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에서 회의 할 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알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 교회 문제들이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처럼 당회 같은 거 전혀 안하고 제직회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요새, 고집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진군하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시험에 든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K▶: 31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32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33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34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활을 부러뜨리는도다 35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음으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 하나님의 군사가 된 사람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마귀를 따라다닙니다. 따라가며 마귀 새끼를 진멸하는 겁니다. 군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따라오니까 맨날 도망이나 다니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가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누가 시험에 들면 자기 하던 일을 제처두고 그 사람을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간절히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사된 사람은 교회를 지키다가

누가 시험에 들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며 그 마귀를 쫓아냅니다. 누가 교회를 나가면 쫓아가서 마귀 굴에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이 있습니다.

6 모든 민족들, "물인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물에서 건져내라

L▶: 38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39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24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이다 40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41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42 그 때 내가 그들을 처서 바람 앞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던져 버렸나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나이다

→ 여기서 "나"가 누구지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방 모든 나라와 그 왕들, 즉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내 원수들**』과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기정일 같은 세상의 악한 정사자와 권세자들,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지만, 멸망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건져내야지요. 그러나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진 그들이지만, 심판의 불바다에서 살아남은 그 나라 백성들, **"나를 모르는 백성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 주님을 섬깁니다. 한국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요. 다윗이 한국 사람 알았나요? 남미 사람들도 섬기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행이지요. 그러나 멸망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물들인 그들을 물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7 흑암으로 뒤덮힌 땅의 민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빛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4 장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말씀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이 찾아 가는 겁니다.

12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리리로 떠나시더라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15 **요단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 길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아** 16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어두움이 덮여있는 이방 땅에 빛이 비추었다"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0 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갈릴리 해변 길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거기의 이방인들이 빛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 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말씀의 빛, 곧 주님입니다.

1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4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네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에 안기지요. 요즘 지진이 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진은 항상 있었습니다. 천 년 전, 수 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극심해질 때 그 때가 배교의 때인 것이 중요하지요. 배교가 일어나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배교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지요. 마음 속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보다 어둠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배교가 일어고, 그게 극한 상황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바로 휴거됩니다. 지진 때문이라고 마귀가 속이지요. 왜 속입니까? 그러다가 지진이 없으면 또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괜찮아집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는 것, 빛인 말씀이 없어지는 것, 그게 요즘 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지요. 빛에 관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2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4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8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9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11 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13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 예수님, 말씀이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빛을 보는데 빛을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참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어둠이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우리 웹싸이트에 말씀을 많이 올려놨지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감동적인 거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병 든거지요. 암에 걸린 사람이 밥을 못 먹듯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세상 영화나 소설, TV 드라마는 어둠이기 때문에 좋아해도 빛인 말씀은 싫어하지요. 술이 있으니까 술이 땡기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땡기는 것과 같습니다.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럽지요. 속이 깨끗하면 누가 때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인 배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의 일을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란 직전에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먼저 봐야합니다. 그 직전에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은 잘 들어도 성경 읽기는 싫은 겁니다.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바랍니다.

8 눈 뜬 소경이 되지 말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라

M▶: 44 **그들이 나에 관하여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45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46 주께서 살아 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47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48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 내셨나이다** 49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편 18 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시편 한편에만 해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다 기록되어있는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엔 그들도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신분이 영생을 받은 우리하고는 다르겠지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면 소경이 아니지만,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경이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는 그들이 솔직히 소경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고치셔서 보게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까 "50 도 안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자기들 앞의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못 만나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저는 거듭나자마자 눈이 떠지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하나님께로부터**』났다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야 넌 내일 해라!" 하시니까 너무 좋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월급 많이 주는 회사라고 부러워하는데, 그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천지를 제게 주신 아버지가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까짓 월급, 아무 것도 아니지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그 날에 쇠잔하여져서 무서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못 만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만납니다. 살아서 못 만나는데, 당연히 죽어서 못 만나지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으면 만나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 "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속는 거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대번에 "Why me?" 하지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있지 않으면 그 때 쭉정이처럼 다 날라가 버립니다.